

희망은 깨어있네

이해인 수녀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가 익어가네/가을이 깊을수록 우리도 익어가네/익어가는 날들은 행복하여라/말이 필요 없는 고요한 기도/가을엔 너도 나도 익어서/사랑이 되네...라고

저는 어느 날 가을을 이렇게 노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열매가 익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열매처럼 익어가는 영성을 살고자 이 피정에 오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가톨릭호스피스 협회가 걸어 온 은혜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자축하는 이 자리에 저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여러분의 끝없는 노력과 인내의 시간들을 존경하고 함께 자랑스러워하면서 사랑의 축하를 드립니다. 4년째 투병중인 암환자로서 여러분의 돌봄에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 또한 가득합니다. 이번 모임에서 좋은 말씀도 많이 들으실 것이고, 뜻 깊은 나눔도 많이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미 잘해오고 계시지만 <희망은 깨어있네>라는 저의 투병시집에 들어있는 시들을 인용하여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늘 더 잘 해보려고 애쓰시는 여러분의 <돌봄의 영성>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말하니 사랑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누구에게나 희망의 신발을 신겨주려는 노력

'내가 신고다니는/신발의 다른 이름은/그리움1혹다/나의 은밀한 슬픔과/기쁨과 부끄러움을/
모두 알아버린 신발을/꿈 속에서도/찾아헤매다 보면/반가운 한숨소리가 들린다/나를 부르는
기침소리가 들린다/신발을 신는 것은/삶을 신는 것이겠지/나 보다 먼저/저 세상으로 간 나의 친구는/

얼마나 신발이 신고 싶을까/살아서 다시 신는 나의 신발은/오늘도 희망을 재촉한다..

-이해인의 시 '신발의 이름' 전문

병원생활을 하다 신발을 신고 퇴원을 할 때 '신발'의 의미가 제겐 딱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임종환 선배 수녀님의 방에서 그가 신던 신발을 들고 나올 적의 그 쓸쓸했던 마음을 자주 기억합니다. 신발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워하는 이에게 신발을 찾아주듯이 여러분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아픈 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웃을 수 있도록 지상의 남은 시간 동안 희망의 신발을 신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헤아리기 위해서는 지극한 인내와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맑은 일이 힘들고 짜증이 나려할 때 이렇게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신발을 신고 있는 내가 누군가에게 신발 신겨 줄 일도 많으니 더 힘을 내야지!'하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 더욱이 아픈 이의 신발을 잘 신겨주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겸손이 필요하겠지요.

2) 늘 새롭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노력

...아픈 사람을 조금만 덜 아프게/슬픈 사람을 조금만 덜 슬프게/도와 줄 수 있는 어떤 힘음/제게 주세요/큰 능력이 아니라도 좋으니/저만 아는 사랑의 비결로/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고/순간치유라도 할 수 있는/마법사가 꼭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

-이해인의 시 '위로자의 기도'에서

꼭 병원이 아니라도 간절하게 기도를 요청해오는 이들,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통증을 호소하며 기도를 부탁하는 이들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하며 치유의 마법사가 되게 해달라는 화살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저 보다 더 많이 이런 체험을 하셨으리라 여겨지는데 막연하게 건성으로 대충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맡고 있는 환자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두고 애인사진 지니듯이 사진도 수첩 속에 넣어 다니며 톱툰이 진심으로 구체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기도 해 보십시오.(항상 기도제목은 노트에 적어 응답받은 고 김형모님의 예)

분명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큰 사랑과 자비안에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피를 나눈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긴밀한 영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는가를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이의 고통을 은연중에 낭만적으로 여기며 본의 아니게 위로대신 상처를 주기도 하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밤낮으로 기도해야만 겨우의 무라도 잘 채울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을 저 역시 종종 수녀원에서의 간병체험을 통해 절감하곤 하였습니다.

3) 늘 새롭게 고운 말을 하는 노력

병들어 베어버린 나무 한 그루/다시 보고 싶어/밤새 몸살하며 생각했지/지상의 나무 한 그루와의 작별도/이리 서러운데/사랑하던 한 사람이/세상을 떠나고 나면/그 슬픔 감당하기/얼마나 힘든 건지!/너무 쉽게 잊으라고 말하는 건 아닌 거 같아/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빨리 잊을수록 좋다고/세월이 약이라고/자꾸 독촉하면 안 될 것 같아/사랑하는 이를 저 세상으로 보내 놓고도/곧 그가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내내 아파하는 이들에겐/마음껏 그리워하라고 말하는 게/더 아름다운 위로가 아닐까/오늘은 그런 생각을 해

-이해인의 시 ‘이별의 아픔’전문

어쩌다 사별가족 모임 사이트에 들어가면 옆에서 자꾸만 잊으라고 하는 말이 서운하고 야속하다는 표현이 올려져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지인을 통하여 들은 애긴데요.

먼 길 떠나는 남편이 아내인 자기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여보 내가 평소에도 출장을 자주 다니잖아? 그런데 이번엔 아주 오래 장기 출장을 갔다고 생각 해’하더라는 말을 듣고 그 심정이 얼마나 애틋할까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부쩍 힐링(healing)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위로와 치유의 표현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막상 표현하려면 말이 궁하거나 때에 맞지 않는 엉뚱한 표현이 불쑥 튀어나와 다른 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저도 요즘은 이것저것 주변 정리를 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라는 직접적 표현 보다는 ‘멀리 이사를 가기 전에’ ‘영 이별을 하기 전에’ ‘소임을 다 마치고 가기 전에’라는 표현을 즐겨쓰는 편입니다. 사랑과 돌봄의 천사 역할을 맡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막말을 해서는 안 되며 상대가 여러분을 힘들고 괴롭게 하더라도 ‘그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무슨 말은 못할까’ 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넓은 마음, 어머니 마음을 키워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는 말이 안 고와도 가는 말을 곱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려면 선으로 마음을 길들이는 노력 외에도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랑으로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찾아서 공부하고 실습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떠세요?’ ‘좀 괜찮으세요?’ 라는 평범한 인사말에도 사랑과 정성을 많이 담을수록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할수록 사랑의 길로 그만큼 가까이 가는 것임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싫어’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은/나도 내가 싫다/‘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말하는 순간

은 나도 네가 밍다/‘절대로 용서 못해’하고/누군가
에게 네가 말하는 순간은/나도 너를 용서할 수가 없
다/우리를 아프고 병들게 하는 그런 말/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게 아니었어/내가 아프고 병들어보니/제
일 후회되는 그런 말/우리 다신 하지 말자/고운 말
만 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잖니/화가 나도 이왕이
면/고운 말로 사랑하는 법을 우리 다시 배우자

-이해인의 시‘어떤 고백’전문

말에는 세금도 없는데 마음만 먹으면 사랑을 전
할 수 있는데 입에서 나가는 우리의 말이 좀 더 겸허
하고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사랑 깊은 배려의 언어, 치유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제가 쓴 글이지만 저도 좋아하고 독자들도 공감해
주는 ‘눈물의 만남’ ‘어떤결심’이란 시로 오늘의 제 이
야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눈물의 만남(이해인)

내가 몸이 아플 때 흘린 눈물과
맘이 아플 때 흘린 눈물이
어느새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네
몸의 아픔은 나를 겸손으로 초대하고
맘의 아픔은 나를 고독으로 초대하였지
아픔과 슬픔을 내치지 않고
정겹게 길들일수록
나의 행복도 조금씩 웃음소리를 냈지

어떤 결심(이해인)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 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 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협회창립20주년 기념행사 격려사〉

